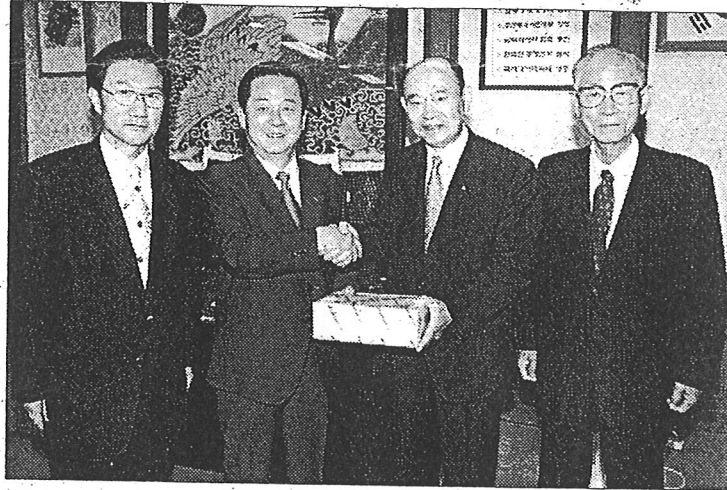


慶南日報

2002년
9월 13일
금요일
단기 4335년
(陰 8월 7일)

THE GYEONGNAM ILBO

http://www.gnnews.co.kr 대표전화 0



일본 참의원 노자와 다이조 의원일행이 12일 경남도를 방문, 김혁규 도지사와 기념품을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남도 사진제공

일본 참의원 道 방문 ‘한일터널’ 성사 요청

김지사 “협조 해나가겠다”

일본 참의원 노자와 다이조 의원일행이 12일 경남도를 방문, 김혁규 도지사를 만나 거제도과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 큐우슈우를 연결하는 한일터널 건설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이조 의원일행은 “지난 수십년간 거론되어 온 한일터널 건설문제는 아직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김혁규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가 터널 건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혁규 지사는 “한일터널 건설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경남도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인적

물적교류의 중심축이 된다는 점에서 터널건설 성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버해협을 잇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터널길이는 50km,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이칸 터널은 53.9km임을 감안할 때 총 길이 2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한일터널은 세계최장의 해저터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측 전문가들은 건설기간이 15-20년, 건설비용이 10조-15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한일터널에 대한 첫 타당성 검토작업을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 검토작업을 의뢰한 바 있다.

/김영우기자

慶南日報 2002年9月13日

日本の参議院が道を訪問 “韓日トンネル” の実現を要請

金知事 “協力していくつもり”

日本の参議院、野沢太三議員の一行が12日、慶南道を訪問、金赫珪道知事と会見し、巨済島と大韓海峡を経て日本の九州を結ぶ韓日トンネル建設事業が実現されるよう慶南道が積極的に乗り出すことを要請した。

太三議員一行は“これまで十数年間にわたり議論されてきた韓日トンネル建設問題は、今だこれと言った進展がなくじれったい”“金赫珪知事をはじめ慶南道がトンネル建設の実現に前向きに取り組んで欲しい”と語った。

これに対し、金赫珪知事は“韓日トンネル建設は中央政府の次元で推進されるべき事業ではあるが、慶南道が東北アジア経済圏の人的・物的交流の中心軸になるので、トンネル建設の実現のため多角的な検討と協力をするつもり”と語った。

ドーバー海峡を結ぶ英国とフランス間のトンネルの長さは50Km、日本の本州と北海道を結ぶ青函トンネルは53.9Kmであることを勘案すると、総延長200Km以上になると推定される韓日トンネルは、世界最長の海底トンネルになるものと予想される。

日本側の専門家は建設期間が15～20年、建設費用が10兆～15兆ウォン程度かかると推定している超大型プロジェクトである。

我が国政府は去る4月、韓日トンネルに対する初の妥当性検討作業を交通開発研究院、国土研究院などに検討作業を依頼している。

※ 写真の説明

日本の参議院、野沢太三議員一行が12日、慶南道を訪問、金赫珪道知事と記念品を交換し握手をかわしている。